

세정 웰메이드 '히어로 린넨 컬렉션' 출시

세정 웰메이드가 여름 시즌을 맞아 '히어로 린넨 컬렉션'을 선보였다. 통기성과 흡습성이 뛰어난 린넨 소재에 웰메이드만의 감각적인 디자인을 적용했다. 대표 제품은 '프리미엄 린넨 긴팔셔츠'로, 린넨 100% 소재를 적용해 여름 시즌 쾌적하고 편안하게 입을 수 있다.



대한항공, '차세대 스텔스 무인기' 개발 나서
전담 개발 조직 구성...미래 시장 선점 본격화

유럽서 '민간 외교' 펼치는 재계 수장들

이재용, 반도체 외교...신동빈, 부산엑스포 유치

〈삼성전자 부회장〉

〈롯데 회장〉

유럽 출장 중인 재계 수장들의 '민간 외교'가 눈길을 끈다.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과 신동빈 롯데 회장이 주인공으로, 새 정부의 '반도체 초강대국 건설'을 위한 반도체 외교와 2030 부산세계박람회 유치 등 정부가 집중하고 있는 핵심 사업의 역량 강화를 위해 애쓰고 있다. 지난달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의 방한 기간 재계 수장들이 대거 참여해 민간 외교 역할을 한 것의 연장선이라는 분석이다.

이재용, 네덜란드 반도체 업계와의 협력 강화
이번 출장 중 대규모 인수합병 성과 관심도
신동빈, 아일랜드서 부산세계박람회 홍보
CGF 글로벌 서밋 미팅서 부산 역량 적극 소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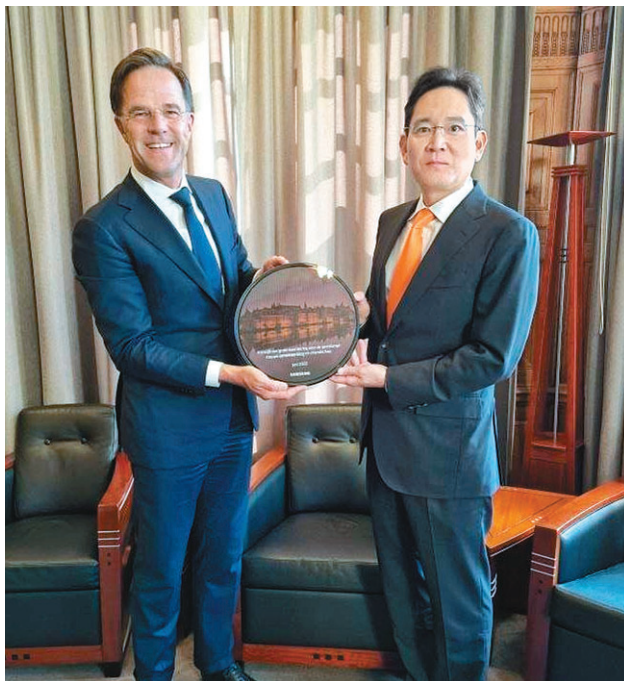
●이재용, 네덜란드 총리와 면담...반도체 협력 논의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은 네덜란드 총리와 면담을 가졌다. 삼성전자는 이 부회장이 14일(현지시간) 네덜란드 헤이그에 위치한 총리 집무실에서 마르크 뤼터 총리와 만났다고 밝혔다. 이 부회장과 뤼터 총리가 만난 것은 6년 만이다. 이 부회장은 2016년 9월 방한한 뤼터 총리에게 삼성전자 전시관 '딜라이트'를 직접 안내한 바 있다.

이번 만남은 반도체 관련 협력을 강화하기 위해 이뤄졌다. 두 사람은 최첨단 파운드리(반도체 위탁생산) 역량 강화를 위한 협력 확대, 글로벌 반도체 공급망 문제 해소 등 포괄적이고 전략적 협력 방안을 논의했다.

이 부회장은 같은 날 에인트호번 ASML 본사를 방문해 피터 베닝크 CEO(최고경영자)를 만나 양사 간 협력 강화 방안을 논의했다. ASML은 반도체 초미세 공정에 필수적인 극자외선(EUV) 장비를 생산하는 업체다. 이 부회장은 EUV 장비의 원활한 공급 방안과 중장기 사업 방향 등에 대해 폭넓게 협의했다. 이 부회장은 다음날인 15일(현지시간)에는 벨기에 루벤에 있는 유럽 최대 규모 종합반도체 연구소 imec를 방문해 루크 반 덴 호브 CEO와 만남을 가졌다.

7일 출장길에 오른 이 부회장은 독일, 프랑스 등 다른 유럽 국가도 방문해 반도체, 5G 등 관련 파트너들과 만나 협력 방안을 논의한 뒤 18일 귀국할 예정이다. 이번 출장 중 삼성전자의 인수합병(M&A)과 관련한 성



반도체 외교와 세계박람회 유치 활동 등 유럽 출장 중인 재계 수장들의 '민간 외교'가 눈길을 끈다. (왼쪽부터)14일 네덜란드 헤이그 소재 총리 집무실에서 마르크 뤼터 네덜란드 총리와 기념 촬영을 하고 있는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오른쪽), 4일 KLPGA 투어 '2022 롯데 오픈' 현장에 마련된 부산엑스포 포토툐 앞에서 롯데 골프단 황유민과 함께 포즈를 취한 신동빈 롯데 회장(왼쪽), 사진제공 | 삼성전자·롯데

과가 나올 지에도 관심이 쏠린다. 네덜란드에는 그동안 유력 M&A 대상으로 거론돼 온 차량용 반도체 기업 NXP가 있다. 최근 다시 매물로 나온 팹리스(반도체 설계) 기업 ARM(영국)과 관련한 행보가 있을지도 주목된다. 최근 이 부회장은 팹 깐싱어 인텔 CEO와 만났는데, 두 회사가 컨소시엄을 이뤄 ARM 인수에 나설 수 있다는 관측도 일각에서 나오고 있다.

●신동빈, 2030 부산세계박람회 유치나서

신동빈 롯데 회장은 20~23일 아일랜드 더블린에서 열리는 CGF 글로벌 서밋에 참여해 2030 부산세계박람회 유치를 힘쓰는 중이다.

세계인의 더 나은 삶을 위한 논의와 지식공유의 장을 마련한다는 취지로 설립한 CGF는 세계 70여 개국, 400여 개 소비자 제조사 및 유통사가 참여하고 있는 소비재 업계 글로벌 협의체다. 글로벌 서밋은 CGF의 대표적인 연례 국제 행사로, 소비재 최고 경영진 대상 비즈니스 네트워킹의 자리다.

올해는 '회복에서 재창조: 새로운 시대의 책임있는 성장'이라는 주제로 소비재 제조, 유통사 CEO 및



임원 1000여 명이 참석한다.

롯데는 CGF 글로벌 서밋에 공식 부스를 마련해 부산세계박람회 유치 활동을 알리는 리플릿과 홍보 배너를 배치하고, 82인치 메인 스크린에 부산세계박람회 홍보영상을 상영한다. 특히 신 회장은 글로벌 그룹 최고경영자와 함께하는 별도의 비즈니스 마팅을 통해 세계박람회 개최 최적지로서의 부산의 역량을 적극 소개할 예정이다.

앞서 신 회장은 부산세계박람회 유치를 위한 릴레이 응원 캠페인 '함께해요 이삼부'에 동참한 데 이어, 4일에는 인천 베어즈베스트청라GC에서 열린 한국여자프로골프(KLPGA) 투어 '2022 롯데 오픈'에 마련된 부산엑스포 포토월을 직접 방문하는 등 부산세계박람회 유치 활동을 적극 펼쳐왔다.

신 회장은 "글로벌 전시 역량뿐 아니라 풍부한 관광 자원, 항구도시 특유의 개방적이고 포용적인 문화까지 갖춘 부산이 월드엑스포 개최의 최적지라고 생각한다"며 "부산세계박람회가 성공적으로 유치될 수 있도록 힘을 보태겠다"고 했다.

김명근 기자 dionys@donga.com

정정욱 기자 jjay@donga.com

대한항공이 방위산업의 새로운 '게임 체인저'로 주목받는 차세대 스텔스 무인기 개발에 속도를 내고 있다.

대한항공은 13일 대전 항공기술연구원에서 '차세대 스텔스 무인기 개발센터' 현판식(사진)을 진행했다. 전담 개발조직을 구성하고 그 동안 축적한 저피탐 무인기 분야의 기술력을 고도화해 미래 스텔스 무인기 시장을 선점한다는 전략의 첫 행보이다.

대한항공은 현재 국방과학연구소가 진행하는 '저피탐 무인편대기' 소요기술 연구 및 시범기 개발 참여를 결정하고, 비행체 설계와 제작 및 비행시험, 유무인 합동작전 성능 시험 등에 참여를 준비하고 있다.

저피탐 무인편대기는 유인 전투기와 편대를 이루어 유무인 복합체제로 임무를 수행하는 개념이다. 유인기 1대당 3~4대가 편대를 구성하여 유인기를 지원 및 호위하는 역할을 한다. 유인기 조종사의 안전을 확보하고 급작스러운 전장 상황 변화에 유연한 대처가 가능하다. 대한항공은 전략 무인기 양산 및 수출시장을 개척하고 유·무인 복합 편대기, 군집제어, 자율 임무수행 등의 핵심기술로 첨단 무인기 시장에서 선도 기업으로 올라선다는 목표를 갖고 있다.

김재범 기자 oldfield@donga.com

“불편사항 곧바로 파악해 개선...고객 만족도 ↑”
1인 스타트업이 만든 ‘해주세요’ 80만 다운로드



1인 스타트업 하이퍼코일의 '해주세요'가 출시 11개월 만에 80만 다운로드를 달성했다. 사용자를 중심으로 인근 헬퍼들에게 심부름을 요청해 생활 속 불편함을 해결하는 앱이다. 특정 영역에 제한 없이 심부름을 해주는 특화 플랫폼이다.

조현영 하이퍼코일 대표는 '해주세요'를 기획부터 디자인 개발, 운영, CS(고객 응대)까지 체계화했다. 최근엔 '동네 전문가' 서비스를 출시하고, 주요 서비스 항목으로 돌봄·간병·펫, 과외·번역·레슨, 사진·영상·음향, 홍보·디자인·IT, 전문 상담 등으로 분야를 세분화했다. 헬퍼는 평균 시급이 1만5000원 정도다. 월 평균 500만 원을 넘게 버는 헬퍼도 있다.

앱서비스·심부름 대형 플랫폼 부문 대한민국 신뢰만족도 1위 브랜드 대상을 2회 연속 수상한 조 대표는 "고객들의 목소리를 현장에서 듣다 보면 고객의 불편 사항을 곧바로 파악할 수 있다. 그러면 결정권을 가진 대표는 즉각 개선 작업에 착수할 수 있고, 자연히 고객들의 만족도는 높아질 수밖에 없다"고 '해주세요'의 성공 비결을 말했다. 그는 최근 '혼자서도 스타트업'(사진·김영사)을 출간해 직접 해보고 깨달은 1인 기업 운영의 핵심 전략과 수익 모델을 공개하기도 했다.

김명근 기자

편집 | 신하늬 기자 mylhuki@donga.com

생명보험협회 심의필 제2020-03815호(2020.12.24) (COM-2020-08-32243)

“암보험 하나 있는데 뇌출혈도 걱정되고”
뇌출혈 10명 중 8명은 50대 이상
2018건강보험통계연보, 건강보험심사평가원(2019)

“암 치료비는 나오지만 생활비가 부족하고”
암 진단 후 실직 또는 휴직 46.8%
2013 국립암센터(국가암환자 의료비 지원 사업 만족도 조사결과)

“생명원인 2위 질병은 대비조치 안했고”
대한민국 사망원인 2위 심장질환
2017 사망원인통계, 통계청(2018)

내 보험! 보장빈틈 걱정없이!
꼭 필요한 보장이 없어서는 곤란하고요? 그럴 때, 이제 걱정 마세요!
큰 병의 진단비도, 특약으로 생활비까지도 걱정없이!
원하는 보장만 골라 보험 빈틈을 꼭꼭 채워드립니다!

가입고객 전원, <AIA 헬스케어 서비스> 제공
※ 상세 내용 별도 안내장 참고

무매당 백세시대 (갱신형) 꼭 하나 건강보험

노출혈 진단비 **급성심근경색 진단비** **임상활비 (특약)** **간편심사 통과 시 가입 가능**

암에 걸린 적이 있어도 (최근 5년 이내 제외) **나이가 많아도 (40~75세)** **자병이 있어도** **수술 병력이 있어도**

건강보험 꼭 하나 들어야 한다면 전화주세요
080-860-6700

HEALTHIER, LONGER, BETTER LIVES

• 가입 후 첫날부터 보장(가입 2년 이내 진단 시 50% 보장, 진단금은 최초 1회한도 단, 암 특약은 가입 후 91일부터(소액임은 첫날부터) • 10년 만기 갱신형으로 최대 100세까지 보장(갱신 시 보험료 인상 될 수 있음) • 만기 원금 지급이 없는 순수보장형입니다 • 이 보험계약은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예금보험공사가 보호하되, 보호 한도는 본 보험회사에 있는 귀하의 모든 예금보호대상 금융상품의 해지환급금(또는 만기 시 보험금이나 사고보험금)에 기타지급금을 합하여 원당 "최고 5천만원"이며, 5천만원을 초과하는 나머지 금액은 보호하지 않습니다 • 기존계약 해지 후 신계약 체결 시 인수 거절, 보험료 인상 또는 보장내용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 이 상품은 일반보험 가입이 어려운 유병력자 및 고연령자 대상 상품으로, 의사의 건강진단이나 일반계약 심사를 받을 경우 더 저렴한 일반보험 가입 가능함 • 당사의 인수 기준에 따라 가입이 어려운 경우도 있으니 자세한 사항은 전문 상담원에게 문의해 주십시오 • 상품설명서 및 약관 확인 바랍니다

AIA생명보험 주식회사

이츠2in1 와이드그릴 상담원서, 무료증정!
• 접수 후 7일 이내, 최소 50만 이상 상품 시(개인정보 제공)
• 배송은 상담원서 후 약 6주 소요(1회 한정)
• 임시 사용용 제품(주요 부품 제외)은 별도 배송
• 본 상품은 소비자가 기존 편의점을 통과하지 않음
• 다른 상품으로 대체 발송될 수 있음